



재속 프란치스코회
 워싱턴 성녀 클라라 형제회
 작금 이를

월례회: 매월 둘째 일요일 1:30pm
 장소: St.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교목관
 17615 Old Baltimore Road Olney, MD 20832

제 340 호
 발행일: 2025 년 8 월 10 일

- 봉사자 이창호 240-252-9575
- 부흥사자 박수현 443-514-5766
- 사기 양혜경 443-939-4013
- 회계 공화자 443-900-2251
- 양선 손인숙 301-793-0318
- 편의원 부승호 301-908-9157
- 영적보조

틀아온 탐자, 다시 시작하는 프란치스코의 길

주님의 이름으로!

한때 나는 신앙생활에 충실하다고 믿었습니다. 나를 대
 로 열심히 하고, 이웃보다는 내 사랑을 성실히 찾아내는 것
 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. 그러던 중 성 프란치스코 성인
 을 만나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.
 그분의 가난과 단순함,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제 삶을 바꾸
 었습니다. 재속 3 회에 임하고, 예수님의 손길을 대신
 전하고자 애쓰며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했습니다.

늦게 받은 영세가 아쉬울 만큼, 성당은 제 삶의 중심이
 되었고, 저는 두 가지 직업을 있다고 믿었습니다. 하나
 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, 또 하나는 생계를 위한 일.
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두 배로 노력하며, 신앙을 우선
 으로 두었습니다.

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일게 되었습니다.
 내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았고, 원만 무성했습니다.
 결혼기인 평온했지만 내면은 메말라 있었고, 기쁨은 사
 라지고, 답답함과 원망만이 남았습니다.
 나는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.

그러던 어느 날, 기도해주던 한 자매를 통해 피정을 스
 개받았습니다.
 답답한 마음을 안고 참석했지만, 피정 중에도 마음은
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.
 나는 혼를린 콜라병처럼, 터질 듯 막혀 있었고, 변화는
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

그러나 어느 주일, 한 형제의 장례로 필라델피아에 가
 게 되었고, 그 자리에서 김기수 신부님을 만났습니다.
 그것은 운교를게도 '틀아온 탐자' 복음이 전해지던 날
 이었습니다. 신부님께 말씀드리려 했지만, 먼저 저를
 보시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

“인숙아, 틀아온 탐자가 왔네!”

제 1 장 재속 프란치스코회

회칙 제 1 조

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하신 영적 가족 가운데
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아시아의 성 프란치스코의 ()
 안에서 ()를 따르도록 불리운 () 백성의 모든 지체
 곧 평신도, 수도자, 사제들을 하나로 모든 것이다.

이들은 ()과 ()은 다양하지만, 활기에 찬 ()의 친교로
 () 사부의 은사(Charisma)를 ()의 생활과 () 안에서
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.

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은 복음에 따라 살아가도록
 부르심을 받은 이를로서,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을
 본받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
 평신도입니다.

1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례로
 받은 소명을 충실히 살아가며,
 1 교회와 세상 안에서 복음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
 살아갑니다.

1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, 그리스도를 중심에
 두고 회개의 삶, 가난과 겸손의 삶, 그리고 사랑과
 평화의 사도직을 실천합니다.

그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고,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듯했습니다. 그제서야 알았습니다.
 제 아픔은 제가 만든 것이었고,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.
 그때부터 마음의 쇠사슬이 하나씩 끊어지고,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
 내 얼굴은 어느새 밝아져 있었습니다.

“마음을 다하고, 목숨을 다하고, 생각을 다하고,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.” (마르 12,30)
 지금도 나는 부족합니다.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, 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.
 나는 여전히 회개하는 프란치스칸으로,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있습니다.

손인숙 소화테레사

형제회 소식

- * 국가 형제회와 지구 형제회의 소식은 이메일과 단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* **미국 국가 재속프란치스칸 모임(5년마다 개최됨) 안내**

**21 st Quinquennial Congress
 Secular Franciscan Order of the USA**

일시: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
 장소: 캔터키 렉싱턴

공지 사항

- * **친교**
 8월 - 윤화자 데레사, 김경순 라우렌시아
 9월 - 김절자 아녜스, 손태귀 요셉피나
- * **월보 1면**
 8월 - 회칙 1조, 손인숙 데레사
 9월 - 회칙 2조, 김정수 수산나

7월 회계보고

전월 이월금 - \$5974.29
 수입 - \$4214.00
 봉헌금 - \$1710.00
 후원금 - \$1200.00
 텍사스 수혜모금 - \$1304.00

지출 - \$2697.44
 박문성신부님(사제서품) - \$300.00
 양시군신부님(영명축일) - \$300.00
 양시군신부님(강의) - \$300.00
 최해옥수사님(강의) - \$300.00
 성물(프란치스코상) - \$39.21
 다미아노십자가 3개 - \$154.23
 텍사스 수혜모금 - \$1304.00

잔액 - \$7490.85

기도 부탁드립니다

- * **교황님의 지향을 위해**
 상호공존 - 공존이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들이 민족, 정치, 종교,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.
- * **우리 형제회의 영적성장을 위해 영성강의 해주실 영적보조자가 빨리 오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.**
- * 새로 시작된 지원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
- * 홍응석 패트릭 형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
- * 쉬고 계신 저희 프란치스칸 형제, 자매님들과 연로하신 널싱홈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
- *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중에 있는 이들과 복구에 애쓰는 분들을 위하여
- * 선종하신 형제회 회원들의 영혼과 연옥영혼을 위하여

영명 축일

8월 본명 축일을 축하합니다

8월 10일 - 김경순 라우렌시아
 11일 - 금명숙 글라라, 소옥진 글라라
 15일 - 이정숙 마리아, 김신성 마리아
 23일 - 김미현 로사

